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 일 표 의원 인터뷰

취재 | 정책개발팀 손영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 일 표** 의원

- 제18,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 특보단장
- 前인천지법 서울고법 판사
- 前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Q 헌정대상 수상의 의미

A.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수상한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19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분석·평가한 뒤,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온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여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신 상인 만큼,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와 신뢰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헌정대상'의 의미를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유권자 대상 수상,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A. 정당 활동과 관련하여 19대 국회 첫해에 새누리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등을 맡았습니다. 여당 의원이지만 당내에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할말은 하면서, 야당과 국민들과는 소통의 정치를 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균형감 있는 시각과 품위 있는 논평으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방송·인터뷰 출연회수가 157회에 달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이 좋은 평가로 많이 찾아주셔서 대국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입법활동 가운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활동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와 경쟁력 향상은 물론, 양극화와 갈등 해소라는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야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한 결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강화된 영업규제와 사전입점예고제, 상권영향평가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등의 방안이 담긴 통합된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끌어 낸 점도 소중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전기설계 및 감리업체 등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것

A. 전력분야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지 바이어 및 전력회사 엔지니어들과 수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 개척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수출촉진회, 해외전시회,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전력분야 우수 업체들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마케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출역량이 있는 전력사업 관련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국내 대기업(공기업 포함)들이 협력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신뢰감 있는 교류와 홍보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전력산업의 발전방안과 과제

A. 최근 우리 전력산업은 원자력에 대한 신뢰 위기, 시장(가격)에 의한 수급조정의 미작동, 중앙집중식(광역) 공급 설비 능력의 한계, 전력난으로 인한 수요억제와 그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와 전력생산은 발전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가 과제로 남아 있고, 또 한전·발전회사 구조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운영상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핵심으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자력 등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통신·가스·IT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